사 설

불교문화 세계에 알릴 계기

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고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룩했다. 그 중에서도 각기 다른 민족, 다른 국가가 다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 그 국가가 가진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고 그 바탕위에서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21세기 들어서 처음 개최되는 세계인의 축전인 2002 월드컵축구대회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더욱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월드컵은 그 나라의 출전 여부에 큰 영향을 받겠지만 출전하지 못한 나라의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인류최대의 축제이다.

하지만 개최가 다가오면서 우리의 준비상황에 대한 걱정들이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관광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한 우리나라는 숙박시설과 관광코스개발 및 안내체제 등이 미비하고 낙후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민족의 1천7백년 역사를 향도해온 불교계가 정부 등 관계 당국과의 협의가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월드컵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세계인들에게 전통사찰의 경내를 활짝 여는 템플스테이(templestay)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갑기 그지없다.

다 알다시피 우리 문화의 상당부분이 불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사찰에는 숙박시설이 풍부할 뿐 아니라 전통문화와 자연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월드컵 시즌이 안거기간과 겹치는 등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한 어려움쯤은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지적했듯이 21세기에는 '문화가 바로 경제'로 탁월한 가치를 갖고있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이번 템플스테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월드컵 이후로도 사찰의 문화와 환경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문화포교 및 경제포교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

'지리산 살리기 1년'의 성과

'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이 창립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8월 30일,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단체와 환경 · 시민, 지리산 지역의 단체 등 무려 200여곳이 참여한 것도 우리나라 환경운동사에서 드문 일이거니와 생태보존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은 창립하면서 지리산댐 백지화 및 지리산 살리기, 낙동강 유역권 댐건설 반대, 개발 위주 수자원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1년 동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어 왔다. 거리에 나가 시위를 벌였으며, 낙동강 1300리 도보행진과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댐 반대의 당위성을 공유하고 여론을 모아나갔다.

'국민행동'에 불교계는 55개 단체가 참여해 결성한 '지리산 살리기 댐 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가 동참했으며, '국민행동'의 중심적 역할을 해냈다. 교계 환경운동에 있어서도 지리산 살리기 운동은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했다. 국민행동과 범불교연대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 정부는 지리산 지역에 댐 건설을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물러났다.

우리는 지난해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이 출범한 것을 보며, 지리산에 댐 건설을 막는다는 차원 이상의 역할을 기대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댐 건설도 막되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올 봄과 여름 90년만의 가뭄이 닥치자 '호기'라는 듯 다시 전국에 12개의 댐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민행동이 댐 건설의 대안으로 내놓은 누수율 줄이기, 녹색댐 건설(나무 심기), 중수도 시설의 도입, 절수형 생활용품의 보급 등에 정책당국자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생명의 질서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행동뿐만 아니라 불교 안팎의 환경 · 시민운동이 반대를 위한 반대 운동을 넘어 우리들 삶의 방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하며 불교계도 적극 나서길 당부한다.

동국 사이버大 내년 개교

불교학부등 5개과 학사 과정 개설

정원 1200명…등록금 120만원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만 되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이버 대학이 동국대에서도 내년 3월 문을 연다.

동국 사이버대학은 7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설치계획서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최근 교수채용 공고를 내면서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3월 개교 계획인 동국 사이버대학은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동국학원 산하의 독립체로 설립된다.

불교학부를 비롯해 예술창작학부, 사이버실무학부, 경찰행정학부, 교양학부 등 5개 학부를 갖춘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교 졸업 학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일반대학 졸업과 똑같은 학력이 인정된다. 전체 정원은 1200명 규모로, 등록금은 다른 사이버대학과 비슷한 120만원 선이다.

경희 사이버대를 비롯해 9곳(6,220명)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대학은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올 3월 문을 열었다.

말 그대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 강의실로, 바쁜 직장인들에게 안성맞춤인 교육방식이다.

현재 동국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사이버대학은 지금처럼 교재를 텍스트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실제 강의를 동영상에 담아 보낼 방침이다.

동국 사이버대학 교학과 이상원 과장은 "사이버대학은 공부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강의방식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국 사이버대학은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10월말 경 최종 인가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서울대 대학원 불교학 전공 추진

서울대 대학원에 협동과정으로 '불교학 전공'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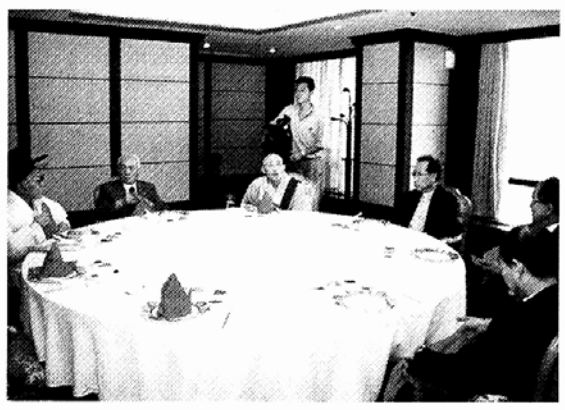
서울대에 재직중인 불교학 관련 전공교수 10여명은 최근 대학원 협동과정으로 '불교학 전공' 과정을 추진키로 하고, 9월쯤 구체적 안을 마련해 올 해 안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학 전공 협동과정에는 현재 철학, 종교학, 역사학, 미술사 전공 교수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자연과학이나 미술 분야 등 모두 6~7개 학과의 참여가 예상된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학 당국이 최종 결정하게 되면, 교육부 허가 등을 거쳐 빠르면 2003년부터 강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대 인문대학 한 교수는 "일본은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불교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세계적 수준의 불교학 발전을 이뤘다"며 "불교학 전공 통합과정이 생기면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받아들여 보다 종합적인 불교학 연구의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반대학의 철학과나 종교학과 등에 불교학 관련 전공교수들이 있긴 하지만 동국대나 위덕대 등 종립학교 외에 불교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한 곳도 없다. 권형진 기자



7대 종교지도자 광복 56돌 담화문

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교단 지도자들은 2일 프레스센터 20층 무궁화홀에서 간담회를 갖고 '8 · 15 광복 56돌을 맞으며'란 담화문을 발표, 남북화해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언론개혁 등 중단없는 개혁을 촉구했다.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56돌 광복절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평화의 소식을 가져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3급 승가고시 10월29일~11월1일 '실시'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법산)는 8일 오후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처음 실시되는 3급 승가고시 일정과 교육내용 및 응시자격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3면)

확정된 내용을 보면 3급 승가고시는 오는 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3박4일간 직지사에서 치르기로 했으며, 비구와 비구니스님을 분리해 교육하기로 했다. 교육내용은 고시산림, 종헌의 이념과 원리, 율장 정신, 선 정신, 승가의 지도자상, 종무행정, 특강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키로 했다.

응시자격과 관련해서는 '선원에서 정규 4안거 이상을 성만'을 필수교육 과정으로 하고 △종단 소속 선원에서 2년 이상 수행 △종단의 전문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수학(동국대 불교대학원〈주간〉 석사과정 포함) △특수학교에서 2년 이상 수학(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야간〉 석사과정 또는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포함) △직능/직무교육을 교육원이 마련한 기준에 의거 연간 40시간 이상 수학 등의 교육과정 중 한 가지 이상을 이수한 자로 정했다. 다만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박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안거나 교육과정 이수와 관계없이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응시자격 요건은 1995년 1월1일 이후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중 구족계를 받고 승랍이 10년 이상되는 스님에 한해 2008년도에 실시되는 3급 승가고시부터 적용된다. 1991년 1월1일부터 1994년 12월31일 이전에 출가하고 사미(니)계와 구족계를 수지한 3급 승가고시 대상자는 이같은 응시자격 요건과 관계없이 고시산림에 참가해 교육을 마치기만 하면 된다. 한명우 기자

'중앙승가대 대책위' 구성

동문 · 학생회 주축…종단에 정상화 방안 촉구

중앙승가대 총동문회(회장 원행)와 총학생회(회장 일음)가 비상대책위를 구성, 학교 정상화에 나섰다.

총동문회와 학생회는 7월25~26일 전북 무주 안국사에서 열린 하계 수련회에서 동문회 1기~10기 회장과 재학생 대표 4명, 총동문회와 학교 측 인사 5명 등 19명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학교정상화를 위한 좌담회' 개최 등 학교현안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총동문회와 학생회는 또 최근 중앙승가대 이사회에서 제기됐던 동국대와의 합병문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사의를 표명한 총장 종범스님의 사표철회와 중앙승가대 정상화를 위한 종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승가대 정상화에 대한 종단 안팎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 모으기 위해 오는 9월 하순경 서울 인사동과 종로, 전국 4~5개 대도시 등지에서 탁발을 실시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부처님 일대기' 영역테이프 보급

국제포교사회, 청소년대상

국제포교사회가 어린이 포교의 일환으로 '부처님 일대기'를 영역한 테이프와 책자 등의 교재를 제작한다. 또 외국인들을 위한 영문 사찰안내 책자도 이달 중순경 발간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제작중인 '부처님 일대기' 카세트테이프 및 교재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회화교재와 똑같은 형식으로, 테이프는 영어로만 구성되고 교재는 영어로 된 원문과 삽화 및 우리말 해설이 실린다. 청소년 교재는 어린이 법회가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모두 1000여부를 무료 배포할 방침이다.

사찰안내 책자는 50쪽 분량으로 한국불교 역사 및 고승에 대한 소개, 사찰구조 및 본사급 사찰 소개 등의 정보를 담게 되며, 각 본사급 사찰 및 외국인 안내 사찰자원봉사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박 구 원



캠퍼스분위기 그대로

남북불교도 동시법회안내

■ 각 사찰에서는 금번 법회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 법회명칭

6 · 15 공동선언실천,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8 · 15 동시법회

(1) 일시

-. 조계사 법회 : 2001년 8월 15일 13시

-. 전국사찰 동시법회 : 8월 15일 11시
(남북공동발원문 발표 요망)

-. 전국사찰 통일기원 타종 : 8월 15일 13시 (33타)

(2) 장소 : 조계사 및 전국 사찰

(3) 주최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4)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5) 참여단체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선우도량, 조계종 중앙신도회, 중앙승가대학교 학생회, 파라미타, 조계종 포교사단,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좋은 벗들,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참여불교재가연대 , (추가 예정)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 한 불 교 조계종 총무원장 서 정 대

'6.15 공동선언 실천, 조국통일 기원 남북불교도 8 · 15 동시법회' 공동발원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지난 20세기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내 나라 내 조국은 새세기의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까지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7천만 우리 겨레는 조국분단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고통을 마침내 끊고자 조국광복 56돌이 되는 오늘 남과 북의 모든 불자들이 각지의 사찰에서 '6.15공동선언 실천, 조국통일 기원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를 열고 우리 불자들의 통일서원을 하나로 모아 삼가 부처님 전에 발원을 올립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꿈결에도 그리며 소원하던 내 조국의 통일은 이제는 소원만이 아닌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평양상봉과 6.15 공동선언으로 분단 50여년 동안 이룩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통일대업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과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감격적인 상봉, 남과 북, 해외의 각계각층이 참가한 민족통일대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 남북노동자통일토론회와 통일대회, 남북농민통일행사들이 훌륭하게 장식됨으로서 우리 겨레는 더는 갈라져 살래야 살 수 없는 하나의 민족임을 세계 만방에 뚜렷이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불자, 우리 겨레 모두는 6.15공동선언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 주는 확고한 이정표임을 절감하였으며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하나로 뭉쳐 나아간다면 통일은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오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우리 남과 북의 전체 불교도들은 7천만 온겨레와 더불어 6.15공동선언 이행과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행에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우리 남북 불자들은 조국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화합정신을 바탕으로 남과 북 서로간의 이해와 상호 신뢰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민족의 힘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우리들은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행에 그 어떤 시련과 장애가 있다해도 굴하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에 언제나 무량한 가호를 내려주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45년 8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동시법회에 참가한 사부대중